



## 새로운 조경수 74

△ 느티나무의 노란 단풍

### 1. 종류와 생육특성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Ulmaceae) 느티나무속(Zelkova)에 속하는 나무로 동부 및 서부아시아, 시베리아, 유럽 등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느티나무와 그 변종인 둥근잎 느티나무, 긴잎느티나무 등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둥근잎느티나무는 속리산, 긴잎느티나무는 강원도(삼척, 통천), 경남(함양, 충무)에 분포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길어서 거목(巨木)으로 자라고 녹음이 짙기 때문에 옛날부터 정자목(亭子木)으로 식재되어 왔으며, 내공해력, 내염력, 내건력, 내한력이 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식재가 가능하지만 생육적지는 중성토양으로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사질양토가 좋다. 특히 느티나무의 목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무늬가 아름다워서 아주 값진 나무라 하여 귀목(貴木)이라 부르고, 공예품, 악기, 실내장식, 기계 등의 고급 특수부재로 활용하고 있다.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2.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느티나무는 수명이 길고 거목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옛

〈표 1〉 느티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MAKINO.	ケヤキ	Zelkora Tree
둥근잎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var. <i>latifolia</i> NAK.	マルバケヤキ	—
긴잎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var. <i>longifolia</i> NAK.	ナガバケヤキ	—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느티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고 26m, 지름 3m 정도 크게 자라는 낙엽활엽수 교목</li> <li>• 수피는 회갈색이고 평활하지만 오래되면 비늘처럼 떨어짐</li> <li>• 잎은 호생하고 난상타원형이며, 길이는 3-7-13cm, 넓이는 1-2.5-5cm임</li> <li>• 점첨두, 예저,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잎자루의 길이는 15mm임</li> <li>• 작은 가지에는 갈색원형의 피목(皮目)이 있음</li> <li>• 가을에 적색, 적황색, 황색, 갈색 등의 여러 가지 단풍이 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은 4~5월에 피고, 단성화(單性花)로 자웅동주임</li> <li>• 꽃은 새가지에 달리며, 수꽃은 가지 아래쪽에 암꽃은 가지끝에 달림</li> <li>• 수꽃은 4~6개로 갈라진 화피(花被)와 4~6개의 수술 있음</li> <li>• 암꽃은 퇴화된 수술과 2개의 암술이 있음</li> <li>• 열매는 이그러진 편구형(扁球形)이고 딱딱하며, 길이 4mm로 뒷면에 능선(稜線) 있음</li> <li>• 열매는 10월에 익음</li> <li>• 정선 종자 입수는 1당 28,000입, kg당 62,000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시베리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성토양으로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사질양토</li> </ul>
둥근잎 느티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잎끝이 둥글고 잎모양이 광타원형(廣橢圓形)으로 느릅나무잎과 비슷함</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리산</li> </ul>	<p>''</p>
긴잎 느티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잎이 광피침형(廣披針形)이고, 느티나무보다 잎이 길다.</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삼척, 통천), 경남(함양, 충무)</li> </ul>	<p>''</p>

느티나무



날부터 마을 앞 섭터나 사찰, 궁궐, 제각 등의 경내에 식재하여 정자목으로 보호 관리하여 왔다. 1920년대 이후에는 느티나무의 고급무늬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조림을 하여 왔고, 1960년대부터는 각종 건설공사에 조경용으로 많은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왔으며, 지금도 도시개발, 주택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많은 곳에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느티나무가 조경수로 많이 식재된 이유는 비교적 빨리 자라고 녹음이 길고 수형이 정연(整然)하고, 거목으로 자라는 등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와같은 특성보다 느티나무는 개체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적황색, 담황색, 자갈색 등 다양한 아름다운 색상의 단풍이 들기 때문에 주로 가을 단풍나무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단풍의 색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품종개발을 하고 색상별 식재를 추진한다면 느티나무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3. 번식 및 양묘방법

느티나무의 번식은 삼목으로도 가능하지만 노



▲ 느티나무의 붉은 단풍



▲ 느티나무의 보편적인 단풍

지(露地)에서는 발근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주로 종자로 번식한다. 종자에 의한 실생묘 양성은 10월에 나무밑에 비닐같은 것을 깔고 장대로 두들겨 떨어져서 2~3일간 음건(陰乾)한 후 종자를 풍선(風選)하여 종자가 너무 마르기 전에 습기를 느낄정도의 모래와 섞어서 저온저장을 하여 두었다 가을에 포지에 직파(直播)를 한다.

저온저장한 종자는 4월상순에 꺼내어 2~3일간 물에 담그어 두었다 건져서  $m^2$ 당 24cc 또는 10g정도를 산파 또는 조파하고, 벚짖같은 것을 얇게 깔아서 건조를 방지하여 주어야 한다. 파종 후 약 1개월이면 발아하며, 평균 포장발아율 45%, 발아기대본수  $m^2$ 당 600본, 득묘본수  $m^2$ 당 200본, 평균묘고 45cm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느티나무는 숙음질을 초기에 단 한번에 끝내면 묘목의 상장생장(上長生長)이 불량하고 균일하게 자라지 못하므로 가능한한 숙음질을 여러번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1년생 묘목의 상체는 이듬해 봄 4월상순경  $m^2$ 당 20~30분을 이식하고 지하고(地下高) 3m 정도의 통직한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주(支柱)를 세워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